

홍콩의 중국 반환 및 諸금융 문제

김정규 · 한국은행 조사제1부 해외조사실

홍콩의 중국 반환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제 금융계에서는 반환 이후에도 홍콩이 금융 부문 등의 경제적 위상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홍콩의 현 체제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약속에 근거하여 반환 후 홍콩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의 상황 변화에 따라 홍콩의 앞날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반환 후 홍콩의 모습에 대한 의문은 반환 후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홍콩 반환 약사

이후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직후 영국에 할양되어 1898년 조약에 의해 99년간 영국에 조차되었다. 조차 만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1982년 10월 중국과 홍콩간 반환을 위한 최초의 공식 회담이 열렸으며, 1984년 12월 회담에서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1990년에는 홍콩을 특별행정구(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 자치를 보장하는 기본법(Basic Law)이 통과되었으며, 금년 1월 26일에는 북경에서 홍콩반환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내년 홍콩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홍콩의 금융·경제 현황

19세기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홍콩의 금융 산업은 홍콩의 주력 산업으로 국민총생산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에는 현재 세계 100대 은행 가운데 85개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고, 인가 금융 기관 수는 1996년 5월 말 현재 376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계 은행은 중국은행(Bank of China) 등 4개의 국유 상업 은행(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을 포함하여 36개(1996년 6월 말 기준)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들 중국계 금융 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홍콩금융관리국(HKMA: HongKong Monetary Authority)은 금년 6월부터 중국 관계를 전담하는 부총재를 별도로 두고 있다.

홍콩의 증권 시장에는 542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상장주식 총시가는 3,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세계 8위, 아시아에서는 東京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 앞으로 중국 기업의 상장이 본격화될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작년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홍콩의 외환 거래 규모는 세계 5위로 일평균 9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현재 경상 거래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중국 인민폐의 태환이 자본 거래까지 확대될 경우, 홍콩 외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홍콩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진 편이다. 이는 홍콩 정부가 1966년 이후 현재까지 3 번을 제외하고는 흑자 재정을 운용함에 따라, 채권 시장의 발전 기반이 되는 대규모 정부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홍콩 정부는 자본 시장 활성화 및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조절을 위해 외환기금증권 및 정부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에 향후 10 년간 2조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어, 채권 시장 발달이 필수적이므로 홍콩의 채권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장 배경

홍콩 경제의 성장 배경으로는 무엇보다도 철

저한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내외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제약이 거의 전무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조세제도도 금융 기관이나 기업 활동에 유리하도록 정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항만, 공항, 통신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정비되어 있고 영어에 능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도 홍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여건은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물류센터로서의 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의 수출에서 중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5%(금년 상반기 중)에 이르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홍콩 반환에 따른 향후 홍콩 경제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의 해답은, 바로 이러한 홍콩 경제의 성장을 가져왔던 제도적·물리적 여건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콩 반환을 앞둔 홍콩 내외의 반응

1984년 趙紫陽 당시 중국 수상과 영국의 대처 수상간 홍콩반환협정이 체결된 이후 1994년까지 홍콩 전체 인구의 8%가 해외로 이주

했으며, 이 가운데 57.8%가 전문 직업인 또는 중간 간부 이상의 경영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이러한 이민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홍콩의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엘리트들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면서 중국에 비판적인 민주파, 부동산 업계 및 정치 행정계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중국 협조파, 마지막으로 사업 영위를 우선시하고 중국과는 별다른 마찰만 없으면 된다는 중도파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중도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최근의 한 설문 조사에서도 중국 복귀를 희망하는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을 요구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하여 홍콩의 중국 반환에 대한 홍콩 주민의 심리적 거부감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5년에 실시된 홍콩공업국의 조사에서는 홍콩에 있는 4,000여 개 이상의 외국 기업 가운데 90% 이상이 반환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외국인 거주자들도 홍콩 반환 후의 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환 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약속

1990년 4월 제7차 全人大에서 통과되어

1997년 이후 홍콩을 구속할 법적 장치인 「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 基本法」은 현행 홍콩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 同법 제5조에서는 반환 후 50년간 홍콩 자본주의체제 보장, 제110조에서 제113조까지는 홍콩의 통화금융제도, 홍콩 달러, 외환 거래 자유, 외환 기금 존속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중국의 정·관계 지도자들은 홍콩의 현 조세체제, 사법체제 등 경제와 관련된 제반 체제가 반환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가령 홍콩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전기침이 작년 6월 22일 개최된 제5차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예비위원회에서 홍콩-대만간 처리 원칙 7개항(錢7項)을 발표하여, 반환 후에도 홍콩-대만간 기존의 관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이와 함께 홍콩이 '中國 香港'이라는 명칭으로 각종 국제 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의 지도층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홍콩 역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잘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8차에 걸친 5개년 경제계획에

의해 1970~80년대는 연평균 9% 수준, 1991~95년에는 12%에 가까운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華南 地域이 주도하였으며 화남 지역의 발전은 홍콩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홍콩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인 외국인 직접 투자의 창구로 외국인의 對중국 직접 투자의 약 60%가 홍콩을 경유하고 있으며, 해외 차입 또한 60~70%가 홍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아시아 화교 자본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중국,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하는 「華南經濟圈」에 대한 의존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남경제권은 세계 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2002년에는 구매력 평가에 의한 국내 총생산이 세계 1위로 올라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지닌 경제권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홍콩은 지금까지와 같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홍콩의 역할은 결국 홍콩이 국제금융 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금융센터로서의 홍콩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은 한마디로 규제없는 자유방임적 금융제도 등 시장경제체제에 있다. 지속

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은 이러한 홍콩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어 홍콩 주민과 마찬가지로 홍콩의 모습이 한동안은 현재와 같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중국은 홍콩 반환과 관련하여 정경 분리라는 자신의 입장을 하나의 중국·두 개의 체제라는 소위 '1國 2體制'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1국 2체제 개념에 의한 정경 분리 대응은 최근의 중국·대만간 양안 사태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는 이등후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처하면서도 양안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안전을 거듭 보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을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금융 시장의 장래에 대한 우려

홍콩의 장래에 대하여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외환 기금의 존속 문제이다. 홍콩은 현재 6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기금(Exchange Fund)을 통해 홍콩 달러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밀턴 프리드만은 반환 후 2년 정도 지나면 중국은 홍콩에 자본 통제를 가할 것이며, 홍콩 달러도 인

민폐로 바꾸게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예측은 결국 외환 기금의 존속 문제에 대한 견해로 볼 수 있다. 현재의 홍콩 금융시스템 하에서 중국이 외환 기금을 중국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은 홍콩 달러화가 생명력을 잃고 인민폐로 대체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제도가 없는 홍콩은 현재 중국은행(Bank of China), 홍콩-상해은행(Hongkong-Shanghai Banking Corp.), 스탠다드차터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등 3개 은행이 발권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은행들은 화폐 발행시 일정액의 미달러화를 금융관리국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에치금이 외환 기금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홍콩 달러화는 同기금에 의해 가치를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의 홍콩 달러화의 미달러화 페그(1U\$=7.8HK\$)제도도 외환 기금을 통해 가능한 제도인데, 결국 외환 기금의 중국 귀속은 바로 홍콩 달러화의 국내의 가치 안정을 담보하는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외환 기금을 중국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983년 10월 중국-영국간 홍콩반환협상이 난항을 주게 되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홍콩 달러화가 폭락하여 홍콩 금융 시장이 혼

란을 겪게 되었으며, 이 여파로 홍콩 경제는 물론 중국까지도 그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홍콩과 중국 모두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외환 보유액 규모가 7월 말 현재 900억 달러를 넘어서 일본, 싱가포르 다음의 세계 3위의 외환 보유국이며, 금년 말에는 1,0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의 600억 달러는 발생할지도 모를 혼란에 비하면 별 매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전문가들은 외환 기금, 홍콩 달러, 환율제도 등 홍콩 금융 시장의 세 축은 50 년은 아닐지라도 한동안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우려는 아시아 지역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타 금융센터와의 경쟁이다. 이 문제는 중국 상해시와의 내부적 금융센터 경쟁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의 외부적 금융센터 경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상해시와의 내부적 금융센터 경쟁에 대해 중국은 상해와 홍콩이 각기 국내금융센터 및 국제금융센터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여 공존·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 설정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이는 아마도 금융의 국제화와 실시간(real-

time)화가 가속화되어가는 금융 환경 하에서 국내금융센터와 국제금융센터의 구분이 쉽지 않은 않다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해 금융 시장은 진출해 있는 외국 금융 기관이 150 개(1995년 10월 말 기준)나 되지만,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38 개에 불과하고 홍콩에 비해 인력, 인프라 등의 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데다, 인민폐의 국제 통화로서의 한계까지 있어 적어도 다음 세기 초까지는 홍콩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 금융센터인 싱가포르는 홍콩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이다. 싱가포르는 일평균 외환 거래액이 1,000억 달러를 훨씬 넘는다. 또한 홍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오랜 전통을 갖추고 있고, 영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우수 인력, 인프라 완비 등 홍콩의 강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싱가포르는 최근 홍콩의 고급 금융 전문가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포스트홍콩을 대비하여 새로운 화교 자본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아직 홍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태국의 경우, 내년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ASEAN 10¹⁾의 금융 중심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1993년 역외 금융 시장인 BIBF(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를 대신하여 ASEAN 국가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창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지역이다. 말레이시아는 라부안에 지난 1990년 역외 금융 시장인 LIOFC(Labuan 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er)를 설립하여 국제금융센터로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同지역은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 낮은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데다 천혜의 관광 자원까지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 대만도 역외 금융 시장 OBU(Offshore Banking Unit, 1984년)를 설립하여 점진적으로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있다.

1)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 현 ASEAN 가입국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비가입 3 개국을 포함한 인 도차이나반도 10 개국임.

〈표〉 홍콩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1991	1992	1993	1994	연중	1995				1996	
						I	II	III	IV	I	II
GDP성장률	5.1	6.0	5.8	5.3	4.6	5.9	4.8	4.5	3.2	3.1	4.0
실업률	1.8	2.0	2.1	2.1	3.1	2.5	3.0	3.4	3.6	3.2	3.2
CPI 상승률	12.0	9.4	8.5	8.1	8.7	9.5	9.2	8.6	7.7	6.4	6.5
무역수지	-17	-39	-34	-104	-190	-46	-68	-34	-43	-51	-57
수출	986	1,195	1,352	1,514	1,737	376	430	478	453	398	443
	(19.7)	(20.8)	(13.1)	(11.8)	(14.9)	(21.1)	(16.7)	(18.2)	(8.9)	(5.7)	(3.1)
수입	1,003	1,234	1,386	1,618	1,927	422	498	512	496	449	500
	(21.2)	(22.6)	(12.3)	(16.6)	(19.2)	(27.5)	(21.5)	(20.1)	(11.3)	(6.4)	(0.4)

자료: 「香港統計月報」, 각호.

IMF, *International Financial Outlook*, 1996. 8.

WEFA, *Asia Economic Outlook*, 1996. 8.

주: 1)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신홍 금융 시장과의 경쟁은 홍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조차 현재의 홍콩이 반환 후에도 그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홍콩의 현재 체제에 대한 조그만 충격도 홍콩을 이러한 경쟁 대열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맺음말

많은 사람들이 홍콩의 장래에 대하여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전망의 결론은 대동소이한데, 이는 그러한 전망들이 홍콩의 장래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이 말하고 있는 1國 2體制는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정책으로 이제부터 성공 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중국 자체도 등소평 사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등소평 이후의 중국이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홍콩 문제는 분명 중국에게도 비중있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로서는 중국의 약속을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으며, 홍콩의 정확한 장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환 후 한동안의 기간을 지켜본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